

# 태국인 학습자의 이해를 위한 한국어 결과 구문에서 나타나는 격표지 분석

NAPASSORN KESSRI\*

## 초록

본 연구는 한국어 결과 구문의 구조와 성분들의 격표지를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국어의 결과 구문은 접미사 '-게'가 사용되며 모절과 결과부의 2가지 마디로 구성되어 있는 구문이다. 태국인 학습자들의 대부분은 한국어의 결과 구문을 구성할 때 모절과 결과부의 각각 절에서 사용되는 격표지가 다르기 때문에 생략된 부분이나 사용되는 격표지를 이해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언어적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오류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어의 결과 구문에서는 모절 및 내포절의 경계와 각각의 서술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논항(argument)을 파악해야 알맞은 격표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태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결과 구문에서 나타나는 격표지에 대한 이해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급 문법인 'NP1 NP2 AP VP' 구문을 배운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 30명을 설문 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수집된 결과를 검토한 후에 태국인 학습자들이 어떤 오류를 가장 많이 범하였는지, 어떤 원인 때문에 오류를 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태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 구문 유형은 절-결과 구문으로 나타났다. 태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결과 구문에 대해 학습할 때 결과 구문이 특히 다른 구문들과 상이한 특징을 가지는 문법적 특성으로 인하여 상당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언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4장에서 태국인 학습자들이 위와 같이 범할 수 있는 오류와 관련하여 생성문법론(generative grammar)으로써 격표지가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우선 구-결과 구문에서는 모절의 서술어가 자동사와 타동사가 모두 될 수 있다. 절-결과 구문은 자동사 및 타동사 등과 같은 모절의 서술어 기준뿐만 아니라, 결과부가 어떠한 범주를 서술하는지에 대한 기준으로도 분류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각각 주어 서술, 목적어 서술, 주어 및 목적어 서술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어 결과 구문의 통사 구조와 격표지 사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태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보다 원활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사 구조를 설명함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결과 구문; 격표지; 태국인 학습자; 생성문법론

---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2022 학년도 후기 졸업, 이메일: napassornkessri@gmail.com

# The Analysis of the Case Marker in Korean Resultative Construction for Thai Learners

NAPASSORN KESSRI\*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yntactic of Korean resultative construction (RC) and the case marker used in its components. Korean RC are determined by using suffix '-ke' between the main clause and matrix clause. Most of Thai learners do not understand the case marker used in each main clause and matrix clause in RC, directly leading a set of linguistic errors. To minimize these error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argument structure in each clause to use case marker suitable. In order to analyze Thai learners' understanding of the usage of case marker in RC,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30 Thai students who learned the 'NP1 NP2 AP VP' construction which is intermediate Korean language skill.

After reviewing the survey results, it can be clearly seen that mostly the construction which Thai Learners do not understand was clausal resultative construction. When Thai learners learn about Korean RC, it can be seen that the RC may be considerable confusion due to the grammatical characteristics that are different from other constructions. In order to provide the correct and efficient education, the chapter 4 of this study analyzed the linguistic errors by using generative grammar to show how case markers are generated. First of all, the phrasal-resultative construction can be used the transitive verb (TV) and

---

\* Graduated in 2022,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ollege of Liberal Arts, Sungkyunkwan University. e-mail: napassornkessri@gmail.com

intransitive verb (ITV) in the main clause. In case of clausal-resultative construction, it is not only determined by TV and ITV, but also determined by the component that the matrix clause described. It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subject description, object description and subject and object description. In conclusion, the study will pave the avenue for Thai learners to accurately apply the syntax of RC and the usage of case marker in RC, so Thai learners can use Korean more smoothly and accurately.

**Keywords:** Resultative Construction; Case Marker; Thai learners; Generative Grammar

# 1. 머리말

##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고에서는 한국어 결과 구문의 구조와 성분들의 격표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의 결과 구문이 나타내는 가장 전형적인 의미는 어떤 행위의 결과로서 초래된 ‘상태 변화’라 할 때 형용사의 ‘-게’ 활용형이 그러한 상태 변화를 표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라는 점이다. (심지영 2015:359) 통사적으로 보면 한국어의 결과 구문은 종속 연결어미인 ‘-게’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모절(母節)과 내포절의 서술어로 동사와 형용사가 나타날 수 있다. 모절 및 내포절 내에는 각각 주어와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데 내포절은 모절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통해 볼 수 있다.

- (1) 가. 철수가 자전거를 지치게 탔다.  
나. 철수는 영희를 화가 나게 괴롭혔다.

(1)의 예문은 한국어 결과 구문에 종속 연결어미인 ‘-게’가 모절과 내포절을 연결시킨 것이다. (1가)는 모절인 ‘철수가 자전거를 탔다’와 내포절인 ‘철수가 지치다’로 분류할 수 있으며 ‘철수’가 두 절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1나)에서는 모절인 ‘철수는 영희를 괴롭혔다’와 내포절인 ‘영희가 화가 나다’로 분류할 수 있으며 ‘영희’가 모절과 내포절에서 각각 목적어 역할과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결과 구문에서는 (1가)처럼 주어가 생략되는 현상이 보이기도 하며 (1나)처럼 주어가 생략되는 현상이나 동일 명사구 삭제 규칙이 보인다. 그래서 (1가)에서 ‘지치다’ 앞에서 ‘철수가’라는 성분이 생략되며 (1나)에서 ‘화가 나다’ 앞에서도 ‘영희가’라는 성분이 삭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태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결과 구문을 쓸 때 생략된 부분이나 사용되는 격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한국어를 학습하는 태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어 결과 구문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모절 및 내포절에 있는 격표지를 파악하지 못하여 올바른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며, 이는 본고의 의의 및 필요성에도 결부된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설명되지 않았던 한국어 결과 구문에서 나타나는 격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2언어 학습자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즉 태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결과 구문을 쓰는 경우에 범할 수 있는 오류를 파악하기 위하여, 태국인 학습자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태국인들이 모국어인 태국어의 어떠한 특성에서 영향을 받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문을 살펴보면 태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결과 구문을 구성할 때 범하는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 (2) 가. 철수가 목이 쉬게 외쳤다.  
나. \*철수가 목을 쉬게 외쳤다.

- 다. 영화는 말을 지치게 땀다.
- 라. \*영화는 말이 지치게 땀다.

태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결과 구문을 구성할 때 범하는 오류는 (2나,라)처럼 발견할 수 있다. (2가)는 ‘철수가 외쳤다’와 ‘철수가 목이 쉬다’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서술어는 자동사로 볼 수 있다. 태국인 학습자들은 ‘Cheolsuu Ta.koon Jon (Tham Hai)Siang Haeb’라는 번역을 통해서 Tham Hai(만들다)라는 요소가 들어 있어서 외치기 때문에 목이 쉬는지, 외쳐서 목을 쉬하게 하는지에 대해 혼동할 가능성이 많다. 반면에 (2다)는 ‘영화는 말을 땀다’와 ‘영화는 말이 지치다’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서술어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볼 수 있다. 즉, ‘말’이라는 성분은 모절의 목적이거나 될 수 있는 동시에 내포절의 주어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태국인 학습자들 입장에서는 ‘말’ 뒤에 어떠한 격표지를 사용해야 하는지의 의문이 있기 때문에 (2라)처럼 비문법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다. 이런 오류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어의 결과 구문에서는 모절 및 내포절의 경계와 각각의 서술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논항(argument)을 파악해야 알맞은 격표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드러낼 것이다. 이를 통해서 태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결과 구문에서 격표지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결과 구문에서의 격표지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분석하여 드러내고자 한다.

## 1.2 선행 연구 검토

격표지에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이 중국어나 일본어 대조 연구, 학습방안 연구로, 한국어 결과 구문에서 나타나는 격표지와 관련한 연구는 많이 없다. ‘-게 하다’ 구문 내에 사용되는 격표지에 대한 연구는 김영희(1992), 이숙(2007), 엄홍준(2017) 등이 있다.

김영희(1992)는 생성문법론의 성분 통어(c-command)이론으로 장형 사동 구문에 대한 통사 구조를 설명하였다. 장형 사동 구문에서는 주절 명사구와 내포절 주어 명사구 중 내포절 주어 명사구를 삭제해야 하는데 주격형 사동문의 경우 주절의 명사구가 삭제되어 그것이 성분 통어(c-command)가 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 김영희(1992)는 피사동주(NP)는 주절과 내포절 모두에서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숙(2007)은 ‘-게 하다’ 구문으로 표현되는 사동문에서 피사동주 명사구에 나타나는 격표지를 대상으로 통사적 분석을 하였다. 상위동사가 세자리 술어의 논항 구조를 가질 경우에 명령형 사동문 구조를 갖게 되어 피사동주는 상위동사의 간접 목적어로서 여격으로 표지되는 반면에, 상위동사가 두자리 술어의 논항 구조를 가질 경우에는 비명령형 사동문 구조에서 피사동주는 하위절의 주어 자리에서 생성된다. 이를 통하여 격표지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적 내포와 통사적 행위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엄홍준(2017)은 주격, 대격 피사동주를 가진 ‘-게 하다’ 장형 사동 구문은 ‘만들’의

‘-게 하다’와 ‘시킴’의 ‘-게 하다’의 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전자는 사동주와 피사동사건의 두 개 논항을 취하는 반면에 후자는 피사동주가 ‘-게 하다’의 독자적인 논항으로서 전체적으로 세 개의 항을 취하는 구조를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즉, 격표지 교체는 의미적 부분에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 사동구문에서 나타나는 격표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며 격표지 교체도 생성문법론이나 현대문법으로 잘 설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김영희(1992), 이숙(2007), 엄홍준(2017)는 사동구문의 통사 구조만 제시하였을 뿐, ‘-게 하다’ 구문으로 표현되는 결과 구문에서 나타나는 격표지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들이 다루지 않은 부분을 파악하고자 한다.

결과 구문의 통사 구조에 대한 연구는 와시오 류이치(1997), 송홍규(2007), 황주원(2011) 등이 있다.

첫째, 와시오 류이치(1997)는 결과 구문에 대한 비교문법적인 고찰을 하였다. 한국어 결과 구문에는 영어와 같이 비능격 결과 구문(nergative resultatives)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NP1 NP2 XP-{-게,도록} V(비능격)와 같은 내포문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였다. 결과 구문은 일반적으로 사동법이 아닌 도달 관계 접속 기능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송홍규(2007)는 모절 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사건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국어의 결과 구문의 형태적, 통사적 특성들을 고찰하였다. 구-결과 구문과 절-결과 구문을 분석하기 위하여 생성문법론을 활용하였다. 두 유형으로의 분류는 술어의 범주 구분보다 의미적 특성인 상태성/비상태성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둘째, 황주원(2011)은 한국어 결과 구문을 의미 특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결과 구문이 성립하기 위한 제약 조건은 결과성 조건, 2차 서술어의 의미적 및 상적 제약, 1차 서술어의 [+완성성] 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세 가지 제약 조건이 충족되면 2차 서술어가 의미상의 주어를 서술할 때 나타나는 의미에 따라 한전성, 변성, 지속성의 의미가 나타나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와시오(1997)와 송홍규(2007)는 각각 결과 구문의 통사 구조와 술어의 특성에 대해 제시하였지만 결과 구문의 격표지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서술어의 논항 구조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 속에서 본고에서는 결과 구문에서 어떠한 격표지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결과 구문의 격표지를 분석하여 결과적으로는 태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결과 구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돕고자 한다.

### 1.3 연구 방법

본고에서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결과 구문에서 나타나는 격표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중급 문법인 ‘NP1 NP2 AP VP’ 구문을 배운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 3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google form)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 사용된 예제들은 14개의 ‘NP1 NP2 AP VP’으로 표현되는 결과 구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에게 각 문항마다 두 개의 문장을 제시하여 문법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게 하였는데 하나는 내포절의 격표지에 주격 조사가 사용되고, 다른 하나는 목적격 조사가 사용되는 문장이다. 그 수집된 결과를 검토한 후에 태국인 학습자들이 어떤 오류를 가장 많이 하였는지, 어떤 원인 때문에 오류를 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과 필요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결과 구문을 쓸 때 생략된 부분이나 사용되는 격표지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또한, 그 오류를 통하여 생성문법론(generative grammar)으로써 격표지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14 문항의 결과 구문은 Kim(1993)과 Wechsler & Noh(2001)에 따르면 구-결과 구문(phrasal resultative)과 절-결과 구문(clausal resultative)의 두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두 유형으로 구분한 후에 각각 구문마다 어떤 구성이 있는지를 분류하여 격표지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한국어 결과 구문

이 장에서는 한국어 결과 구문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결과 구문은 잘 알려져 있듯이 ‘-게/-도록<sup>1</sup> VP’의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내포절의 서술어는 형용사나 동사가 나타날 수 있으며, 모절의 서술어는 동사만 나타날 수 있다. 한국어 결과 구문에 대한 기존 연구는 와시오 류이치(1997), Wechsler & Noh(2001), Lee & Lee (2003), 송홍규(2007), 이숙(2007), 황주원(2011) 등이 있는데, 대부분은 영어 결과 구문과 대조 분석한 연구이다. 박소영(2004)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은 영어의 결과 구문에 대응되는 구문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 (3) 가. 철수가 깡통을 납작하게 눌렀다.  
 나. John pounded the can flat.  
 다. 영희가 벽을 노랗게 칠했다.  
 라. Mart painted the wall yellow.

한국어 (3가)와 영어 (3나)의 문장과 비교하면 ‘납작하게’는 형용사 ‘납작하-’과 부사형 전성 어미인 ‘-게’가 연결된 것이다. (3다)와 (3라)도 마찬가지로 ‘노랗게’는 형용사로 분석되며 ‘칠했다’의 내포절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영어의 결과 구문은 한국어와 달리 결과 서술의 서술논항은 상위동사의 목적어에 제한된다는 직접목적

<sup>1</sup> 본고에서는 ‘-게’와 ‘-도록’ 사이에 나타나는 의미 차이를 분석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어제한규칙 (Direct Object Restriction<sup>2</sup>)이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숙 2007:238) 그리하여, 영어는 한국어와 달리 의미적 속성의 차이라기보다는 통사적 속성의 차이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Li(1999)는 결과 구문이 여러 언어에서 두 동사의 합성으로 표현되며 시상형상 조건(Temporal Iconity Condition)에 속한다고 하였다. 시상형상조건은 한 문장 안에서 두 동사의 배열순서가 각 동사가 기술하는 사건들의 시간적 선후관계와 일치해야 한다는 제약이다. 즉, 선행 서술어가 1차 사건을 기술하고 후행 서술어가 결과 사건이나 상태를 기술함을 뜻한다. 그러나, 한국어는 핵말언어(head-final language)이기 때문에 2차 서술어가 문장의 주동사의 기능을 갖는다. 한국어에서 시상형상조건을 만족시키는 결과 구문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 (4) 가. 철수가 땅을 평평하게 다졌다.  
나. 영희가 목이 쉬게 외쳤다.

(4)에서 볼 수 있듯이 1차 사건이 완료되면 그 사건의 결과 상태가 2차 사건에 드러나게 된다. (4가)는 철수가 땅을 다지는 행위가 완성되면 땅이 평평해지는 상태가 된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4나)는 영희가 외치는 행위가 완료되면 목이 쉬는 상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Li(1999)는 한국어의 절-결과 구문(clausal resultative)과 구-결과 구문(phrasal resultative)의 통사 구조를 다음과 같은 구조로 촘스키의 생성문법론으로 분석하였다.

- (5) 가. [그가 [ [창고를 [ [노랑(-계)]AP 칠하]V' ]VP ]v' ]vP (-였다)  
나. [그가<sub>i</sub> [ [말을<sub>i</sub> [ [pro/<sub>j</sub> 지치(-계)]CP 타]V' ]VP ]v' ]vP (-왔다)

(5가)의 통사 구조를 보면, 결과 표시 술어의 의미역은 그것의 상호 최대통어(c-command) 영역 내에 있는 모절의 목적어에 할당된다. 즉, ‘노랑(-계)’는 ‘칠하다’의 목적어인 ‘창고를’에 할당되는데 ‘창고를’의 목적격표지는 모절의 서술어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Li(1999)는 이러한 구-결과 구문 표시부는 모절 목적어의 상태변화를 표현한다고 하였다. (5나)와 같은 절-결과 구문에서는 결과표시부가 공대명사(pro)를 포함하는 CP로 투사되고, 이 공대명사(pro)는 모절의 주어나 목적어와 공지표(co-index)될 수 있다. 따라서, 절-결과 구문의 표시부는 모절의 두 명사구 중 하나의 상태변화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sup>2</sup> 직접 목적어 제약(Direct Object Restriction: DOR) ‘A resultative phrase may be predicated of the immediately postverbal NP, but may not be predicated of a subject or of an oblique complement. (Levin and Rappaport Hovav (L&R) 1995, p. 34)’ 예를 들면, ‘The rock rolled the rock smooth’는 smooth는 기본 구조의 목적어인 the rock에 관하여 서술하기 때문에 DOR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김성옥, 2015, p. 113)

황주원(2011)은 한국어 결과 구문을 성립시키는 제약 조건을 세 부분으로 분류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결과성 제약의 성립을 위하여 결과 구문은 하나의 문장에 1차 서술어에 의한 사건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2차 서술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오충연, 2010, p. 596) (4가)처럼 2차 서술어 ‘평평하게’는 ‘땅’을 다지는 사건(1차 서술어)이 완성된 후의 결과 상태를 지시하고 있다. ‘평평하게 된 땅의 상태’는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결과성을 갖고 있는 결과 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1차 서술어의 사건이 완성된 후에 즉시 그 결과 상태가 2차 서술어에 나타나야 한다.

둘째, 2차 서술어 제약의 성립을 위하여 1차 서술어의 목적어나 주어가 2차 서술어의 의미상 주어가 되어야 한다. (양적석, 2002, p. 463) 또한, 2차 서술어는 무한척도를 갖는 의미가 아닌 ‘깨끗하다, 마르다’ 등의 완성점인 마지막 끝 지점을 상정할 수 있는 서술어만 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 (6) 가. 아빠가 머리를 짧게 잘랐다.
- 나. 엄마가 책을 천천히 읽었다.

(6가)의 2차 서술어 ‘짧다’는 의미상의 주어 ‘머리’가 짧은 결과 상태를 나타내며 1차 서술어의 완성점인 마지막 끝 지점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 구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반면에 (6나)의 2차 서술어 ‘천천히’는 책을 천천히 읽은 결과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책을 읽은 사건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 구문이 아니다.

셋째, 1차 서술어 제약은 [+ 완성성]을 획득하고 있어야 한다. 황주원(2011, pp. 544-545)은 한정성을 나타내는 결과 구문의 1차 서술어가 다음과 같은 상적 제약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동사의 목록도 제시하였다.

- (7) {부사어}+ {서술어} 결과 구성의 1차 서술어 상적 제약
- 가. [+ 결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나. [-결과성]일 경우에는 반드시 [+ 완성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8) 가. [+ 결과성] 동사 목록: 들다, 묻다, 펴다, 열다, 익다, 잠기다, 뉘이다 등
- 나. [-결과성]이면서 [+ 완성성]인 동사 목록: 쓰다, 마시다, 읽다, 먹다, 지다, 비우다 등

(7)에서 볼 수 있듯이 1차 서술어는 [+ 결과성]을 가져야 하거나 [+ 완성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8)에 있는 동사의 목록을 살펴보면 (8가)의 ‘열다’는 ‘강이 단단하게 열었다’처럼 강이 열었기 때문에 단단한 상태로 변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8나)의 동사 목록을 살펴보면 ‘마시다’와 같은 동사는 ‘철수가 술을 취하게 마셨다’처럼 철수가 마시는 행위를 완성한 후에 취한 상태로 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황주원(2011, p. 542)에 따르면 한국어의 결과 구문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결과성 제약, 2차 서술어 제약, 1차 서술어 제약의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다음 절에서 한국어 결과 구문인 ‘NP1 NP2 AP VP’ 구문을 배운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 30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Google Form)의 분석 결과를 드러내고자 한다.

### 3.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결과 구문 이해에 관한 설문조사

태국인 학습자의 이해를 위한 한국어 결과 구문에서 나타나는 격표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급 문법인 ‘NP1 NP2 AP VP’ 구문을 배운 태국인 한국어 중급 학습자 30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들의 한국어 등급은 3급(15명), 4급(6명), 5급(5명), 6급(4명)으로 나뉘어 있다. 2022년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인스타그램(Instagram)으로 공지하여, 설문조사(Google Form)를 진행하였다. 태국인 학습자들은 어떤 측면에서 한국어의 결과 구문을 이해 못하는지 어떤 문장에서 격표지를 잘못 사용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방법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크게, 14개의 한국어 결과 구문 문장, 어려움의 원인 4가지 요소 제시 등으로 구성되었다. 우선적으로 ‘NP1 NP2 AP VP’으로 표현되는 결과 구문으로 구성된 14개 문장을 제시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 각 문항마다 두 개의 문장을 제시하여 문법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게 하였다. 문항마다 두 답변이 있는데 하나는 내포절의 격표지에 주격 조사가 사용되고, 다른 하나는 목적격 조사가 사용되는 문장이다. 14개의 문장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표 1.

설문조사에 제시된 한국어 결과 구문

옳은 문장	틀린 문장
가. 영희는 머리를 짧게 잘랐다.	가. 영희는 머리가 짧게 잘랐다.
나. 철수는 벽을 빨강게 칠했다.	나. 철수는 벽이 빨강게 칠했다.
다. 물이 뜨겁게 끓었다.	다. 물을 뜨겁게 끓었다.
라. 우리는 땅을 평평하게 다졌다.	라. 우리는 땅이 평평하게 다졌다.
마. 개가 우리를 겁이 나게 노려보았다.	마. 개가 우리가 겁이 나게 노려보았다.
바. 철수는 영희를 화가 나게 괴롭혔다.	바. 철수는 영희가 화가 나게 괴롭혔다.
사. 철수가 말을 지치게 탔다.	사. 철수가 말이 지치게 탔다.
아. 철수는 술을 취하게 마셨다.	아. 철수는 술이 취하게 마셨다.
자. 철수가 손을 아프게 아이를 때렸다.	자. 철수가 손을 아프게 아이를 때렸다.
차. 영희는 정신이 들게 얼굴을 씻었다.	차. 영희는 정신을 들게 얼굴을 씻었다.
카. 철수가 목이 쉬게 외쳤다.	카. 철수가 목을 쉬게 외쳤다.
타. 그녀는 발이 쓰리도록 걸었다.	타. 그녀는 발을 쓰리도록 걸었다.

과. 철수는 숨이 차게 달렸다.

과. 철수는 숨을 차게 달렸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설문조사에 사용된 문항들은 (가~과)처럼 각각 옳은 문장과 틀린 문장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가~라, 아)를 살펴보면 구-결과 구문에 해당되는 것이고 태국인 학습자들이 옳은 문장을 선택한 비율은 각각 90%, 83.3%, 60%, 70%, 86.7%로 나타났다. (마~바)와 같은 경우에는 모질의 목적어가 내포절에 상호 최대통어(c-command) 때문에 모질의 목적어가 내포절의 주어로써 가능한 것이고 태국인 학습자들이 옳은 문장을 선택한 비율은 각각 70%, 76.7%로 드러났다. (사)는 Li(1999)가 분석한 것처럼 ‘직접 목적어 제한’을 위반할 수 있는 절-결과 구문이며, 결과표시부는 모질의 주어나 목적어 중 하나의 상태변화를 표현하는 문장이다. 태국인 학습자들이 (사)의 옳은 문장을 선택한 비율은 80%로 나타났다. (자~과)는 이중중출문<sup>3</sup>에 해당된 것이며, 내포절이 대부분 상태 동사(Stative Verb)로 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문장에서 태국인 학습자들이 옳은 문장을 선택한 비율은 각각 73.3%, 73.3%, 60%, 73.3%, 70%로 드러났다. 이를 통하여 태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결과 구문 유형은 절-결과 구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옳은 문장을 선택한 비율을 살펴보면 75%밖에 도달하지 못하여 학습자들에게 각 결과 구문의 통사 구조마다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태국인 학습자에 대한 어려움의 원인에 대한 결과는 가장 많은 응답이 ‘모질과 내포절을 구별하지 못한다’(40%)였고, 나머지는 통사의 논항 구조를 모른다(33.33%), 사동구문과 헷갈린다(26.67%)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응답인 ‘모질과 내포절을 구별하지 못한다’를 통해서 태국인 학습자들이 격표지로 인하여 결과 구문에 내포된 절과 모질의 성분을 구별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표1에 나타난 ‘철수가 말을 지치게 뒀다’라는 문장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가끔 ‘말’이라는 요소가 모질의 성분인지 내포문의 성분인지를 헷갈릴 경우가 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응답인 ‘논항 구조를 모른다’를 통해서 특정 모질의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들의 수와 의미역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표 1에 나타난 ‘철수는 영희를 화가 나게 괴롭혔다’라는 문장에서 ‘괴롭히다’는 타동사이므로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그러나, 태국인 학습자들이 서술어의 논항 구조를 모르는 경우에는 목적어를 누락할 수 있으며, 모질의 목적어로 사용되어야 하는 ‘영희를’을 내포절의 주어로만 생각을 하고 주격조사인 ‘가’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또한, ‘사동구문과 헷갈린다’의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동구문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 구문에도 이와 같이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sup>3</sup> 임동훈(1997, p. 62)는 ‘철수가 키가 크다’류, ‘토끼가 피가 많다’류 등의 이중주어문을 제시하였다. 전자의 주어는 ‘키가’이고 ‘철수가’는 서술어의 논항이 아니라 명사 ‘키’의 소유주 논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형용사 ‘크다’는 제2 명사구 ‘키다’를 취함으로써 명제를 완성시키고, 제2 명사구는 제1 명사구 ‘철수가’를 취함으로써 ‘키’의 소유주가 없는 상태의 의미의 의존성을 보완한다.

- (9) 가. 인수가 국이 끊어 넘치게 하였다. (이숙, 2007, p. 304)  
 나. 인수가 국을 끊어 넘치게 하였다. (이숙 2007: 304)<sup>4</sup>  
 다. 개가 우리를/\*가 겁이 나게 노려보았다.

(9가)와 (9나)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동구문의 내포절은 격표지로서 ‘이/가’와 ‘을/를’을 사용할 수 있지만 (9다)와 같은 결과 구문에서는 목적격조사만 사용될 수 있다. 남기심·고영근(2019)은 피사동주 격 교체에 대해 주격, 대격, 여격 모두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기혁(2009)에 따르면 (9가)는 피사동주에 주격 표지가 나타날 경우 복문 구조 [인수가 [국이 끊어 넘치게]했다]인 접속문 구조로 논의하고 있는 반면에 (9나)는 복문의 구조가 긴밀화되어 복문과 단문의 이중적 구조 [인수가 국을 [끊어 넘치게] 했다]로 판단하였다. 이처럼 장형 사동구문에서는 격표지가 교체되더라도 의미는 거의 동일하고 글의 구조상으로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9다)와 같은 결과 구문에서 모절의 서술어는 주어와 목적어를 모두 요구하는 서술어이기 때문에 (9다)에서 ‘우리를’은 모절의 목적어로서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보았을 때 태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결과 구문에 대해 학습할 때 결과 구문이 다른 구문들과 상이한 특징을 가지는 문법적 특성으로 인하여 상당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언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는 태국인 학습자들이 위와 같이 범할 수 있는 오류와 관련하여 생성문법론(generative grammar)으로써 격표지가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위의 표1에서 제시한 결과 구문의 예시들을 구-결과 구문(phrasal resultative)과 절-결과 구문(clausal resultative)의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구문마다 어떠한 구성으로 이뤄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격표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드러낼 것이다.

#### 4. 한국어 결과 구문에 대한 분석

본 절에서는 3절에서 논하였던 14개 결과 구문의 격표지 생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태국인 학습자들은 모절과 내포절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성향을 보이며, 모절의 서술어의 논항 구조를 모르는 원인으로 인하여 격표지를 잘못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각 결과 구문들에 대한 분석을 제시할 것이다. 우선, 해당 한국어 결과 구문들을 Wechsler & Noh (2001)가 제시하였던 구-결과 구문 및 절-결과 구문으로 구분하는 기준뿐 아니라, 모절의 서술어에 대하여 해당 서술어가 목적어를 가지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sup>4</sup> 이숙(2007, p. 304)에 따르면 (9가)와 (9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즉, (9가)에서와 같이 주격표지가 사용되는 문장의 경우에는 사동주가 관여를 하지 않아도 결과가 유도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반면, (9나)에서와 같이 대격표지가 사용되는 문장의 경우에는 사동주가 행위로서 관여하여 그에 따른 결과가 유도되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해석하였다.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분석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구문의 논항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다음에서 구-결과 구문과 절-결과 구문을 순서대로 제시할 것인데 분류 양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구-결과 구문에서는 모절의 서술어가 자동사와 타동사가 모두 될 수 있다.

#### 4.1 구-결과 구문

송홍규(2007, p. 194)에 따르면 한국어의 구-결과 구문에서 모절의 서술어에는 일반적으로 타동사가 쓰이고 결과 표시 술어가 모절 술어의 직접 목적어에 대한 상태변화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3절의 표1에서 제시하였던 (가~라)의 문장은 구-결과 구문에 해당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 (10) 가. 영희는 머리를 짧게 잘랐다.
- 나. 철수는 벽을 빨강게 칠했다.
- 다. 물이 뜨겁게 끓었다.
- 라. 우리는 땅을 평평하게 다졌다.

(10가)는 ‘영희는 머리를 잘랐다’인 모절과 ‘짧(-게)’인 부사구로 분석할 수 있다. 2차 부사구 ‘짧다’는 의미상 주어인 ‘머리’가 짧은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완성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 구문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모절 서술어인 ‘자르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기 때문에 ‘머리’는 ‘자르다’의 목적어로 쓰일 수밖에 없다. 설문조사에 나타난 오류처럼 ‘\*영희는 머리가 짧게 잘랐다’를 보면 ‘자르다’의 필수적인 논항이 없으므로 해당 문장이 비문법적이다. 태국인 학습자들이 모국어인 태국어 어순 때문에 NP2에 어떠한 격표지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헷갈림이 있을 수 있다. 태국어의 어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 (11) Yonghee    Tat        Pom        Sun  
      영희가    자르다    머리(가/를)    짧다  
      ‘영희가 머리를 짧게 잘랐다.’

(11)을 볼 수 있듯이 태국어의 어순을 살펴보면 ‘Pom(머리)’는 제2 동사구의 주어인지 모절의 목적어인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Sun(짧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동사구인 ‘Tat(자르다)’를 수식할 수도 있고 명사구인 ‘Pom(머리)’를 수식할 수 있다. 여기에서 태국어의 이러한 구문에서 NP2는 모절의 동사로부터 목적격을 전달받기 때문에 목적격조사가 사용되고 있지만 동시에 제2 동사구로부터 주격을 전달받을 수 있다. 이처럼 태국인 학습자들이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격표지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한국어 결과 구문의 통사구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구-결과 구문은 모질의 목적어의 격조사를 주격조사로 바꿀 수 없다. (10나)와 (10라)도 마찬가지로 각각 ‘칠하다’와 ‘다지다’는 목적어를 요구하므로 목적격조사를 사용해야 하지만 의미상으로 각각 ‘벽’과 ‘땅’이 2차 서술어의 주어라고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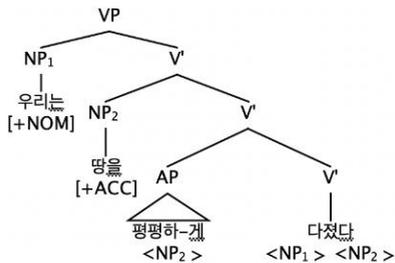


그림1. ‘우리는 땅을 평평하게 다졌다’의 구문 분석

그림1을 볼 수 있듯이 ‘땅’에 목적격조사가 사용되지만 모질의 서술어인 ‘다지다’의 논항이 되는 동시에 내포문의 서술어인 ‘평평하게’의 논항도 된다. [땅을 [[평평하게] 다졌다]]를 살펴보면 ‘다지다’가 ‘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논항이며 ‘평평하게’는 ‘다지다’ 동작의 양상을 설명해주는 부사절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지다’보다 아래 층위에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층위별 분석과는 별개로 ‘땅’은 ‘다지다’와 마찬가지로 ‘평평하게’에서도 의미상으로 주어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평평하다’라는 2차 서술어는 심층구조로 볼 때 그림1에서 ‘(땅이) 평평하게’처럼 ‘(땅이)’라는 생략된 주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10다)와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가 한국어 결과 구문에서 적용될 수 있는 예이다. (10다)의 ‘물이’는 모두 1차 서술어의 주어와 2차 서술어의 주어가 되며,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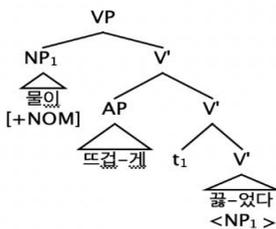


그림2. ‘물이 뜨겁게 끓었다’의 구문 분석

그림 2를 통해 ‘물이’가 1차 서술어인 ‘끓다’와 2차 서술어인 ‘뜨겁다’의 주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구문을 살펴보면 물이 끓었고 그 결과로 뜨거워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끓었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림1에서 살펴본 ‘땅’의 경우처럼 ‘물’ 역시 ‘(물이) 끓었다’와같이 하위절의 위치에서 주어의 생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구-결과 구문에서 격표지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모절의 서술어의 논항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모절의 서술어가 타동사일 경우에는 모절의 목적어가 의미상으로는 내포절의 주어로 볼 수 있지만 모절의 서술어의 논항 구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목적격조사가 사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모절의 서술어가 자동사일 경우에는 모절의 주어는 일반적으로 내포절의 주어가 되기 때문에 혼동 없이 주격조사를 사용할 수 있다.

## 4.2 절-결과 구문

절-결과 구문은 자동사 및 타동사 등과 같은 모절의 서술어 기준뿐만 아니라, 결과부가 어떠한 범주를 서술하는지에 대한 기준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3절에서 표 1에 나타난 (라~파)는 모두 절-결과 구문이며, 크게 자동사와 타동사의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결과부가 주어 범주를 서술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반면에 타동사일 경우에는 목적어 서술, 목적어 및 주어 서술, 주어 서술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 4.2.1 자동사 절-결과 구문 유형

모절의 서술어가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는 자동사일 경우에는 그 동사의 논항에 심층구조의 목적어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표시부가 모절 주어의 상태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다. 자동사 절-결과 구문 유형은 태국인 학습자들이 제2주어를 내포절의 주어로 봐야 하는지, 모절 서술어의 논항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헷갈림이 있을 수 있다. 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Cheolsuu Ta.koon Jon (Tham Hai)Siang Haeb(철수가 목이 쉬게 외쳤다)’의 문장처럼 태국인 학습자들이 절 경계를 분리하여 Tham Hai(만들다)라는 요소를 들어가게 해서 ‘외쳤기 때문에 목이 쉬게 하였는지’, ‘외쳐서 목을 쉬게 하였는지’의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태국인 학습자들이 전자처럼 해석한다면 ‘목’은 주격조사를 사용하지만 후자처럼 해석한다면 ‘목’은 삽입된 ‘Tham Hai(만들다)’라는 요소의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목적격조사를 사용한다. 후자의 경우는 모절 서술어가 자동사이면 목적격조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철수가 목을 쉬게 외쳤다’가 비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구문들로는 표1에 나타난 문장을 살펴보면 (카~파)의 문장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자동사로 구성된 절-결과 구문은 구-결과 구문과 달리 결과표시부가 주격 조사와 결합된 명사구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 (12) 가. 철수가 목이 쉬게 외쳤다.  
 나. 그녀는 발이 쓰리도록 걸었다.  
 다. 철수는 숨이 차게 달렸다.

(12)가 예시하는 바와 같이 ‘외치다’와 같은 비능격동사(Unergative verb)와 ‘걸다’, ‘달리다’와 같은 비대격동사(Unaccusative verb) 등의 동사는 모절의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 (12가)의 경우에 ‘외치다’는 주어만 요구하기 때문에 ‘목’은 모절의 서술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리하여, 모절의 서술어가 자동사일 경우에는 목적격조사를 사용할 수가 없다. 또한, (12)의 제2 주어는 모절의 논항의 일부분이거나 소유관계(철수의 목, 그녀의 발, 철수의 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Yeo, 2006) Park, D.-W.(2010)에서도 이러한 ‘-게’ 구문의 제2주어는 ‘철수가 목이 쉬게 외쳤다’처럼 모절의 논항과 의미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구문은 제1 주어와 제2 주어의 관계를 살펴보면 ‘NP1-이/가 + NP2 이/가+ VP’인 이중주어 구문(Double Subject Construction)과 같은 현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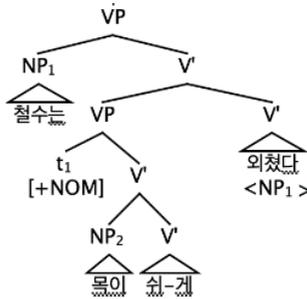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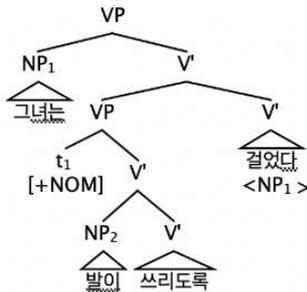


그림3. ‘철수는 목이 쉬게 외쳤다’의 구문 분석



#### 그림4. ‘그녀는 발이 쓰리도록 걸었다’의 구문 분석

그림 3과 그림4를 보듯이 NP2는 NP1보다 VP(쉬다)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쉬-’는 먼저 ‘목이’와 결합하여 ‘목이 쉬-’의 한 마디로 되었다. ‘철수는’은 내포절의 VP의 지정사(Specifier)에서 생성되었으며 [[철수는<sub>i</sub> [pro<sub>i</sub> [목이] 쉬]-게]의 구조처럼 공대명사를 남기고 모절의 VP의 지정사 위치로 옮겼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의미론적으로 살펴보면 그림3에서 ‘목’은 개별적인 서술의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의 목이어야 한다.(이홍식, 2020, p. 307) 그림4에서 ‘발’과 마찬가지로 NP2인 ‘발’과 NP1인 ‘그녀’는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중 주어 구문에 해당되는 구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박철우(2014)에서는 이중주어 구문의 첫 번째 명사구가 지칭성을 가지고 이른바 서술절 내의 주격 성분과 모종의 의미론적인 관련을 가지면 주어로 분석된다고 하였다. 그림3과 그림4를 통하여 두 번째 명사구는 첫 번째 명사구에 소속되는 인물을 나타내거나 첫 번째 명사구에 연관되는, 그 부분 집합이나 속성에 해당된다. (임동훈, 1997, p. 32) 이는 [주어[주어+서술어]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Chomsky(1981, p. 36)를 통하여 ‘철수가 목이 쉬다’의 서술어는 NP2인 목에만 의미역을 부여하고 NP1에는 의미역을 부여하지 않는다. NP2가 서술어와 직접 관계를 맺고 있음으로써 첫 번째 명사구와 두 번째 명사구가 조사 ‘의’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즉, 내포절의 서술어에는 부류(Class)를 나타내는 NP1과 구성원(Member)를 나타내는 NP2가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모절의 서술어의 논항 구조 조건과 내포절 서술어의 의미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격조사인 ‘이/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설명할 수 있다.

#### 4.2.2 타동사 절-결과 구문 유형

타동사 절-결과 구문 유형에서 모절의 서술어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유형이다. 이때 결과부가 어떠한 범주를 서술하느냐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구문들은 결과부에 명시적인 주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절 결과부로 분석한다. (Wechsler & Noh, 2001) 모절에 목적어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부의 서술어가 주어를 서술하는지 목적어를 서술하는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모절의 서술어는 각각 주어 서술, 목적어 서술, 주어 및 목적어 서술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 가. 주어 서술

주어를 서술하는 유형은 결과부의 서술어가 모절의 주어를 서술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결과부의 서술어는 상태 동사(Stative Verb)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절의 주어의 상태 변화를 가리킨다. 가끔 결과부에 쓰이는 술어는 주어의 신체의 상태변화를 표현하는 서술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모절 주어의 상태변화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송홍규, 2007, p. 217) 표1에 나타난 (자-차)가 이 유형에 해당되며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 (13) 가. 철수가<sub>i</sub> [pro<sub>i</sub> 손이 아프게] 아이를 때렸다.  
 나. 영희는<sub>i</sub> [pro<sub>i</sub> 정신이 들게] 얼굴을 씻었다.



그림5와 그림6을 통하여 제1주어는 모절과 내포절 모두에서 실현되지만 내포절에서 제1주어는 공대명사(pro)만 남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어를 서술하는 타동사결과 구문은 명사구 간의 의미관계와 모절 서술어의 논항구조를 파악하면 격조사를 잘 적용할 수 있다. 첫 번째는 NP1와 NP2 간에 서로 ‘전체-부분’의 의미관계가 있다.

그림5에서 볼 수 있듯이 NP1인 ‘엄마’와 NP3인 ‘손’의 의미 관계 분석을 통하여 ‘엄마’와 ‘손’은 전체-부분 관계에 해당되며 여기서 ‘손’은 ‘엄마’의 신체 부분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림6에서도 마찬가지로 NP1인 ‘나’와 ‘NP2’인 ‘정신’은 전체-부분 관계에 해당된다. 수형도를 통하여 모든 NP3와 NP1는 내포절의 서술어의 지정어(Specifier)에 위치하고 있다. 내포절의 서술어는 먼저 NP2와 결합하여 각각 ‘손이 아프게’와 ‘정신이 들게’의 한 마디로 되었다. 그 후에는 NP1이 그 절과 결합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모절 서술어의 논항 구조를 살펴보면 명사구의 의미역을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림5에서 ‘(엄마가) 손이 아프게’라는 부사절은 ‘아이를 때리었다’라는 하위절과 구분되어 있으며 NP1인 ‘엄마’라는 논항에 구속되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손이 아픈 것은 NP3인 ‘아이’가 아니라 NP1인 ‘엄마’라고 보아야 한다. 그림6과 같은 경우에는 그림5처럼 분석을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NP2인 ‘얼굴’은 행동주(Agent)가 아니며, NP3인 ‘정신’의 전체-부분의 관계가 되지 못한다. 그리하여, NP1인 ‘나’는 NP3인 ‘정신’의 대주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 나. 목적어 서술

목적어를 서술하는 유형은 결과부의 서술어가 모절의 목적어를 서술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절 서술어의 목적어는 행동주(agent)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부의 주어가 될 수 있다. 이 유형은 주어를 서술하는 유형과 같이 결과부의 서술어는 상태 동사(Stative Verb)이기 때문에 모절의 목적어의 상태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다. 우선 한국어의 결과 구문의 통사 구조를 설명하기 전에 태국인 학습자들이 제2주어가 내포절의 주어인지 모절의 목적어인지 고민이 많다는 사실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번역문으로 볼 수 있다.

- (14) Cholsu Yae Yonghee Krot  
 철수가 괴롭히다 영화가/를 화가 나다  
 ‘철수가 영화를 화가 나게 괴롭혔다.’

(14)를 볼 수 있듯이 태국어의 어순을 살펴보면 ‘Yonghee(영화)’는 제2 동사구의 주어인지 모절의 목적어인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문장은 모절의 ‘서술어+ 명사구+ 내포절의 서술어’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결과 구문이다. 태국어는 한국어와 달리 격표지(Case Marker)가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결과 구문

에서 동사가 접속사나 어미 없이 결합될 수 있다.<sup>5</sup> 그리하여, ‘영희’가 어떠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격표지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문은 표1에 나타난 (마-바)의 문장이 이 유형에 해당되며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 (13) 가. 개가i 우리를j [proj 겁이 나게] 노려보았다.  
나. 철수는i 영희를j [proj 화가 나게] 괴롭혔다.

(13가)를 살펴볼 수 있듯이 ‘노려보다’는 주어인 ‘개’와 목적어인 ‘우리’의 2개 논항을 가지고 있다. 문장에서 나타내는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상식적으로 ‘개’가 아닌 ‘우리’가 겁이 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3가)는 원래 ‘개가 우리를 우리가 겁이 나게 노려보았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문장이지만 ‘노려보다’라는 목적어를 가져야만 하는 모절 서술어의 특징을 고려해보았을 때 ‘우리’를 이라는 목적어 격표지를 지니는 논항을 생략할 수는 없다. 내포절 내에서 ‘겁이 나게’의 주어에 해당하는 ‘우리가’와 모절의 목적어인 ‘우리’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점과, 앞서 언급하였듯이 문장에서 나타내는 상황을 미루어보았을 때 내포절 서술어의 주어와 모절 목적어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함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에, ‘우리가’라는 논항은 생략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13나)도 마찬가지로 ‘철수’가 아닌 ‘영희’가 화가 났다고 볼 수 있다. 내포절 서술어의 주어와 모절 목적어가 동일한 것을 지칭하기 때문에 내포절에 ‘영희’를 생략하여 공대명사인 ‘proj’를 사용한다. 이를 통하여 모절 서술어의 논항 구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목적어가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수형도로 살펴볼 수 있다.

---

<sup>5</sup> 태국어는 격표지가 없지만 동사에서 발달한 문법화 과정이 있다. 예를 들면, Sriprasit (2003, p. 162)는 'yuu'라는 동사를 상태동사, 진행을 의미하는 보조동사, 부사, 연결 접사의 4가지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yuu'가 상태동사로 쓰일 경우에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문법화된 의미로 쓰일 때에는, '머무르다, 움직이지 않다'와 '(어떤 현상이) 일어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yuu'는 16 세기에는 진행을 의미하는 보조동사의 기능만 가지고 있었는데, 19세기에 확실함을 표현하는 담화 표지로도 사용되었다. 은유적 확장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장소인 전치구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면, 'chan yuu baan(나는 집에 있다)'과 같은 문장에서의 '에'는 격표지로 보지 않고 전치사로 보인다. 이러한 요소를 통해 태국어에는 격표지가 없지만 동사에서 발달한 전치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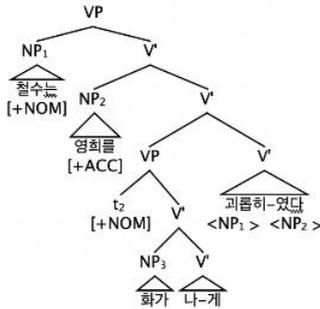


그림7. ‘철수는 영화를 화가 나게 괴롭혔다’의 구문 분석

그림 7을 볼 수 있듯이 ‘(영화가) 화가 나게’라는 부사절은 모절 서술어인 ‘괴롭히다’를 수식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 ‘영화’는 모절의 서술어로부터 대상(Patient)이라는 의미역 자질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목적격조사가 사용되고 있다. 그림7에서 구문의 기저 구조를 살펴보면 하위절 동사가(화가 나다) 자동사이므로 동일 명사구 삭제 규칙이 적용되어 하위절 주어를 삭제시키기 때문에 상위절 목적어 자리에 있는 ‘영화를’만 나타났다. 즉, 이 문장은 ‘철수는 영화를 [영화가 화가 나게] 괴롭혔다’처럼 ‘영화’가 모절의 목적어와 내포절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모절 서술어의 논항 구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목적격조사가 생략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내포절에 있는 ‘영화가’라는 논항은 생략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다. 주어 및 목적어 서술

주어 및 목적어를 서술하는 유형은 결과부의 서술어가 모절의 주어나 목적어 중 하나의 상태변화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 유형은 모절의 주어와 모절의 목적어가 모두 내포절의 서술어로부터 행동주(Agent)나 경험주(Experiencer)라는 의미역을 할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포절의 주어가 둘 중 하나를 표현할 수 있다. 표1에 나타난 ‘철수가 말을 지치게 댔다’처럼 ‘지치다’는 상태 동사이며 ‘철수’나 ‘말’에 의미역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철수가 지치다’나 ‘말이 지치다’ 두 가지로 모두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태국인 학습자들이 어떠한 격표지를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는 사실을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형도 분석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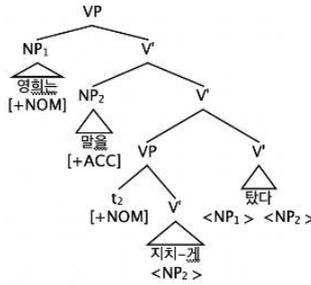


그림8. ‘영희는 말을 지치게 탔다’의 구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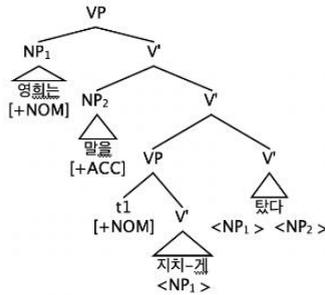


그림9. ‘영희는 말을 지치게 탔다’의 구문 분석

그림8을 볼 수 있듯이 모절의 서술어인 ‘지치다’는 NP2인 ‘말’에 경험주(Experiencer)의 의미역을 부여하는 반면에 그림9에서 모절의 서술어인 ‘지치다’는 NP1인 ‘영희’에 ‘경험주(Experiencer)’의 의미역을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8은 목적어를 서술하는 유형처럼 ‘(말이) 지치게’라는 부사절이 모절 서술어인 ‘타다’를 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말이’는 모절의 서술어로부터 대상(Patient)이라는 의미역 자질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목적격조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내포절의 동일 명사구 삭제 규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하위절 주어(말이)를 삭제시키기 때문에 상위절 목적어 자리에 있는 ‘말을’만 나타났다. 즉, 이 문장은 ‘영희는 말을 [말이 지치게] 탔다’처럼 ‘영희’가 모절의 목적어와 내포절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모절 서술어의 논항 구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목적격조사가 생략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한다.

반면에 그림9는 ‘영희’가 내포절의 서술어인 ‘지치다’로부터 ‘경험주(Experiencer)’의 의미역 할당을 받았으며 동시에 모절의 서술어인 ‘타다’로부터 ‘행동주(Agent)’의

의미역 할당을 받았다. ‘(영회가) 지치게’라는 부사절은 모절의 서술어인 ‘타다’를 수식하며 내포절의 주어인 ‘영회가’는 동일 명사구 삭제 규칙으로 인하여 삭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영회’는 ‘타다’의 지정어(Specifier)에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모절의 주어 위치에만 나타났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어 결과 구문의 구조와 성분들의 격표지의 생성을 관찰하였다. 연구자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태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결과 구문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후에 일부 태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결과 구문을 쓸 때 생략된 부분이나 사용되는 격표지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많고 ‘모출과 내포절을 구별하지 못한다’ 등의 원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태국인 학습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어 결과 구문의 통사 구조를 분석하는 연구를 하였다. 본고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태국인 학습자들이 결과 구문에 대해 이해하지 못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태국인들이 모국어인 태국어의 어떠한 특성에서 영향을 받는지 어떠한 원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하였다. 태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결과 구문을 쓰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파악하기 위하여, 태국인 학습자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였다. 본고는 태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결과 구문에서 격표지를 잘 사용할 수 있기 위하여 결과 구문에서의 격표지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분석한다는 의의가 있다.

제2장에서 와서오 류이치(1997), Wechsler & Noh(2001), Lee & Lee (2003), 송홍규(2007), 이숙(2007), 황주원(2011) 등의 학자들이 한국어 결과 구문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고 드러냈다. 대부분 학자들은 영어 결과 구문 대조 연구를 많이 하였으며, 영어의 결과 구문은 한국어와 달리 결과 서술의 서술논항은 상위동사의 목적어에 제한된다는 직접목적어제한규칙(Direct Object Restriction<sup>6</sup>)이 지켜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황주원(2011)이라는 학자가 한국어 결과 구문을 성립시키는 제약 조건은 결과성 제약, 2차 서술어 제약, 1차 서술어 제약의 세 부분으로 분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을 통하여 4장에서 통사 구조를 분석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제3장에서는 태국인 학습자의 이해를 위한 한국어 결과 구문에서 나타나는 격표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급 문법인 ‘NP1 NP2 AP VP’ 구문을 배운 태국인 한국어

<sup>6</sup> 직접 목적어 제약(Direct Object Restriction: DOR) ‘A resultative phrase may be predicated of the immediately postverbal NP, but may not be predicated of subject or of an oblique complement. (Levin and Rappaport Hovav (L&R), 1995, p. 34)’ 예를 들면, ‘The rock rolled the rock smooth’는 smooth 은 기본 구조의 목적어인 the rock 에 관하여 서술하기 때문에 DOR 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김성욱, 2015, p. 113)

학습자 30명을 설문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크게 14개의 한국어 결과 구문, 어려움의 원인의 4가지 요소 등으로 구성되었다. 우선적으로 ‘NP1 NP2 AP VP’으로 표현되는 결과 구문으로 구성된 14개 문장을 제시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 각 문항마다 두 개의 문장을 제시하여 문법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게 하였다. 설문 결과는 태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결과 구문 유형은 절-결과 구문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옳은 문장을 선택한 비율을 살펴보면 약 75%밖에 도달하지 못 하여 학습자들에게 각 결과 구문의 통사 구조마다 설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4장에서는 Wechsler & Noh(2001)가 제시하였던 구-결과 구문 및 절-결과 구문으로 구분하는 기준뿐 아니라, 모절의 서술어에 대하여 해당 서술어가 목적어를 가지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구문의 논항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구-결과 구문에서는 모절의 서술어가 자동사와 타동사가 모두 될 수 있다. 절-결과 구문은 자동사 및 타동사 등과 같은 모절의 서술어 기준뿐만 아니라, 결과부가 어떠한 범주를 서술하는지에 대한 기준으로도 분류할 수 있었다. 자동사 절-결과 구문과 같은 경우에는 모절의 서술어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제2주어가 목적격조사를 사용할 수가 없다. 반면에 타동사 절-결과 구문과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분류하자면 결과부가 어떠한 범주를 서술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 주어 서술, 목적어 서술, 주어 및 목적어 서술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주어 서술의 경우에는 결과부에 쓰이는 술어는 주어의 신체의 상태변화를 표현하는 서술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모절 주어의 상태변화를 표현하는 것을 드러냈다. 목적어 서술의 경우에는 주어 서술하는 유형과 같이 결과부의 서술어는 상태 동사(Stative Verb)이기 때문에 모절의 목적어의 상태 변화를 표현하는데 모절 서술어 때문에 제2주어는 목적격조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어 및 목적어를 서술하는 유형은 결과부의 서술어가 모절의 주어나 목적어 중 하나의 상태변화를 표현하는 유형도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고는 태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결과 구문의 통사 구조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기에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이 추후 연구에서 밝혀질 필요가 있다.

우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학습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국어 결과 구문을 가르치는 실질적인 교육 방안을 찾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한국어 결과 구문의 통사 구조에 대해 제시하였으나 해당 연구가 초석이 되어 앞으로 학습 문제를 활용하는 등, 재미있는 교실 내 학습 활동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고는 ‘-게’ 구문인 결과 구문만 분석하였으나 태국인 학습자들이 사동구문과 같은 ‘-게’ 구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사동구문 내에서 격요체로 인하여 학습자들이 격표지를 가끔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기혁. (2009). 사동구성의 긴밀성과 피사동자 격표시. *한글*, 283, 93-126.
- 김성욱. (2015). 영어 결과문에 관한 소고. *영어영문학연구*, 57(1), 109-129.
- 김영희. (1992). ‘-게 하-’ 사동 구문의 세 유형. *국어학*, 54, 89-120.
- 남기심·고영근. (2019). *표준 국어문법론 (전면개정판)*, 한국문화사.
- 박소영. (2004). *한국어 동사구 수식 부사와 사건구조*. 서울: 태학사.
- 박철우. (2014). 한국어에는 주어 가 없는가. *현대 문법연구*, 76, 149-172.
- 송홍규. (2007). 국어 결과 구문의 구성에 대하여. *민족문화연구*, 46, 191-225.
- 심지영. (2015). 한국어 결과 구문으로서의 ‘V1어 V2’ 특성 고찰. *새국어교육*, 103, 356-390.
- 엄홍준. (2017). 한국어에서의 장형 사동 구문에 대한 통사 구조. *현대문법학회*, 92, 107-122.
- 오충연. (2010). 국어 결과 구문의 범주 설정에 대한 연구. *언어연구*, 26(3), 595-619.
- 와시오 류이치. (1997). 결과표현의 유형. *어학연구*, 33(3), 435-462.
- 이숙. (2007). ‘-게’ 결과구문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34, 233-256.
- 이홍식. (2020). 이중주어 구문의 의미역에 관하여. *비교문화연구*, 59, 293-326.
- 임동훈. (1997). 이중 주어문의 통사 구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 31-66.
- 홍기선. (2011). 영어의 결과 구문과 한국어의 “-게” 구문. *한국언어학회*, 36(4), 1143-1169.
- 황주원. (2011). 한국어 결과 구문의 의미 특성. *한국어 의미학*, 36, 531-556.
- Chomsky, Noam.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Levin, Beth, & Malka Rappaport Hovav. (1995). *Unaccusativity At the Syntactic-Lexical Semantic Interface*, Cambridge: MIT Press.
- Li, Y. (1999). Cross-componential causativity.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7, 445-497.
- Sriprasit Mingmit. (2003). *A diachronic study of /laeaw/, /yuu/ and /yuulaeaw/*. M.A Dissertation. Chulalongkorn University.
- Wechsler, S. & Noh, B. (2001). On resultative predicates and clauses: Parallels between Korean and English. *Language Sciences*, 23(4-5), 391-423.
- Yeo, S. (2006). Some Notes on Resultatives in Korea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6, 687-706.

Received: August 15, 2022

Revised: October 31, 2022

Accepted: December 1, 2022